

2017-2018년의

활동록

한서고등학교 이수빈

안녕하세요! 저는 곧  
고2가 되는 이수빈입니다.  
2016년에 체인지메이커를 알게  
되어 꼭 활동 하고 있습니다!

꾸준히 노력하는 어머니지만 제가  
할 수 있는 한의 활동을  
진행중이에요

→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확보,  
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기,  
체인지메이커 확산 등등

# 1. '마을 계획단' 으로서의 활동

청소년들만의 공간이 없는 탓에  
"우리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!"  
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
학기 중: 전체 회의에서  
청소년들을 위한 장소

제공 건의

방향: 동네의 활용 가능한

장소 건의

그래서 다른 어른 분들이 제  
의견을 존중해주셔서 장소를  
논의중입니다:)

## 2. 스타트업 위켄드 행사의 "YOUTH" 패널

### 대표

청소년 나쁨의 고통을 대변하기  
위해 체인지메이커로 활동했던  
것들과 여러 생각들을 함께  
나누고 왔어요~

### 3. 체인지메이킹! 확산

더 많은 체인지메이커들이 생기길  
원하는 바람으로 확산 활동에  
참여했죠!

## 확신을 위한 활동들

1. 유쓰망고마켓 운영지기
2. 친구들 대상으로의 꾸준한 홍보
3. **자율 동아리 개설 예정!!!**



2017년 한 해를 지내면서,  
체인지메이커 동아리가 저희  
학교에도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 
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거 같아요.

앞서 언급한 공간은 상의 층에  
있고, 제 친구들은 이제  
체인지메이커 활동에 관심을 갖게  
되었어요:)

올해에는 학교에 자활  
동아리를 개선하련  
습니다!

혹시 제 카드 뉴스를 보신  
분들은 동아리 활동 팁도  
알려주셨음 좋겠어요!